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I. Log-In

II. Web 2.0, 소통의 문제

III. 소통을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1. 교회의 공공성 제고
2. 복음적 정체성 회복
3. 시민적 소통의 추구

IV. Log-Out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8-0026-A00257).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church's ethical tasks for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of 'Web2.0'. But, this paper does not belong to web-technology but a paper of Christian social ethics. Especially, there are some requests from civil or liberal society for church's change and participation to civil movement in Korea. Some people rebuke church as a conservative and morally-corrupted group, others blame church as a non-communicative group with civil values of Web2.0 which pursuing bi-directional communications.

In this context, the paper studies reasons of civil blames for church as moral problems and proposes some ethical tasks of church's communicative possibility in Web2.0 era. The focuses are as follows; (1) Enhancement of church's publicness in civil society. This is from view of 'Public Theology', especially Max L. Stackhouse. Faith is not of privatization but of public concerns. Church must concern with global and civil issues because God rule whole society including church and civil society. (2) Recovering of gospel identity which connected with Stanley Hauerwas' view of 'Ecclesial Ethics'. By letting church be the church through doing accord to Jesus narrative, Christians must become an excellent alternatives to the world which infected violence and war.

These two tasks are moral conditions which requested for communication with civil value or liberal society. On these bases, (3) Christian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of Web2.0. Church have to try again and again to apologize with enthusiasm for gospel truth to civil society. For this purpose, there would be effective ways as like 'office of public relations', 'media study', and 'opinion leadership', etc. In conclusion, church in civil society of Web2.0 must pursue to be a good and servant leader in morality.

Key Words : Christian Social Ethics, Web2.0, Publicness, Church, Moral Leadership.

I. log-in

웹2.0으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면 교회의 진정한 변화나 성숙 자체가 불가능할지 모른다. 가까운 예로, 이른바 ‘촛불정국’은 교회에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다. 그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든 혹은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 든 간에 시민적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저변에 깔린 웹2.0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커녕 설 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은 웹2.0의 시민사회에 직면한 교회의 과제를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소통’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바꾸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과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회를 몰아세우려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란 무엇이어야 하며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윤리적 성숙을 도모하고 싶은 셈이다.

II. Web 2.0, 소통의 문제

Web 2.0은 기술용어이기 이전에 신학적 이해를 요구한다. 그것은 일종의 변화의 상징이다. 이메일이 보편화되었고 혹은 이미 이메일 무용론까지 등장했으며 블로그를 통한 소통은 더 이상 낯설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UCC를 비롯한 영상 메시지들은 감성세대의 소통에 대한 변화

된 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웹2.0은 일방적 홍보에서 쌍방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변화의 기반임에 틀림없다. 기존의 홈페이지 위주의 일방적 전달의 시대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들은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촬영하여 웹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함으로써 대중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그것이 정치선동이든 혹은 시민적 행동이든 간에, 소통의 중요성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시민기자', '집단지성'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웹2.0기반의 참여와 소통에 관해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셈이다.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시민들은 웹2.0시대의 콘텐츠 수용자이자, 활발하게 여론을 만드는 공급자이기도 하다. 웹2.0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것은 컴퓨터나 인터넷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을 둘러싼 사회윤리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사회윤리에 대한 성찰이 시급하다. 이러한 변화와 소통의 필요성에서 교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 소통이 사회윤리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마당에, 한국교회는 과연 웹 2.0 시대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또 대처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시민사회'로 상징되는 우리시대에 교회는 과연 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 대부분이 네거티브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시대나 안타가 없던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안티는 '싫어할 권리'에 대한 주장과 함께 교회의 윤리적 허약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는 과연 웹 2.0기반의 시민사회와 잘 소통하고 있는가? 혹시 불통상태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2008년의 ‘촛불 지키기’와 ‘촛불 끄기’로 양분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시민사회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교회는 과연 소통적이었을까? 혹자는 이를 두고 케리그마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소통방식 자체에 대한 신학적 재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 순수한 웹 기술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교회의 케리그마적 소통 방식은 전형적인 웹 1.0의 방식으로서, 상호완성의 형식을 지닌 웹 2.0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아마도 웹 2.0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장과 맞물려 있을 듯싶다. 도대체, 교회는 태생적으로 웹 2.0적일 수 없는 것일까?

사실, ‘웹 2.0’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종의 기술이론상의 혹은 매스컴분야에서 주목받던 것이었으나 시민사회의 특성 및 변화와 맞물려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일반적으로, 웹 2.0이라는 단어는 미국 IT 전문 미디어, 오라일리(O’Reilly)의 부사장 도허티(Dale Dougherty)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웹2.0의 정보통신기술상의 혹은 언론분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웹 2.0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야 옳을 듯싶다. 특히 그 안에 내재된 핵심가치 즉 참여, 개방, 공유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가령, 전통 미디어를 소수의 기자집단에 의해 커뮤니티의 뉴스와 정보를 생산, 전달하는 일방향 매체라 할 수 있다면, 웹2.0 미디어는 양방향 혹은 쌍방향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필자가 보기에, 사회적 참여와 소통이 주목받게

1) 촛불집회를 다룰 때, 시민적 저항과 연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듯싶다. 문화축제, 종교간 연대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저항과 유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광장축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촛불집회’라는 일회성 이슈 그 자체에 머물기보다 교회가 해야 할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촛불집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대안과 예연자적 메시지를 모색해야 할 듯싶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실천적 대안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2) 김택환, 『웹2.0시대의 미디어경역학』(중앙북스, 2008), 24.

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부분과 밀접히 연계되는 듯하다.

이러한 웹2.0현상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개인 미디어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나타난 소통방식의 변화일 것이다. 이른바 ‘블로그 저널리즘’이 등장했고 어느덧 ‘블로그’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시민기자’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한 용어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웹2.0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은 시민적 소통에서 핵심가치로 떠올랐다. 이는 일종의 상징일 수 있다. 시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를 시도하는 ‘시민적 소통’의 요구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³⁾ 시민사회에 있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J. Habermas)의 ‘공론장’ 개념은 소통의 사회윤리학적 기반일 수 있다. 특히 대화(dialogue), 토론(debate), 토의(deliberation)함으로써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계속 변화시키고, 공동으로 합의된 집합적 의견을 만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지향하는 의사소통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⁴⁾ ‘웹2.0’, ‘집단지성’, 그리고 ‘소통’의 사회윤리학적 가치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집단지성에 대해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희 수’ 조작은 물론이고 편향된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여러 시도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집단지성을 공정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⁵⁾ 이른바 ‘넷

3) 신진욱, 『시민』(책세상, 2008), 15.

4) 이동수, 「참여와 거버넌스, 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상호의존」, 이동수 편, 『미래사회와의 소통』(이매진, 2008), 60.

5) 이 부분은 “인터넷 집단지식” 한계 극명하게 노출(조선일보 2009. 1. 12일자)을 참고하였음. 보수언론을 인용했다고 해서 글 전체의 기조를 예단하는 경솔함을 저지르지 않기 바라며, 균형 있는 이해의 시도 자체를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한다. 이를테면, 인터넷 지식이 검증 없이 유통되어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식인사회에 스며든 이념적

십'에 의해 여론이 좌우되는 허점도 있고 조작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특이한 것은 블로그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솔직한 편향'을 하나의 장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이다.⁶⁾ 이러한 주장들은 인터넷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웹2.0 시대를 인터넷규제로 대응하는 것은 일종의 '퇴행'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의 미디어 액세스권(access right to media)을 보장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⁷⁾ 대부분의 경우에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웹2.0과 집단지성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가치판단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민윤리의 성숙을 기대해 본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웹2.0 현상이 시민사회의 핵심가치인 '소통'에 주목하게 했다는 점이다. 공간상 원탁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웹을 기반으로 하여 토론을 시도하고 소통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2.0은 인터넷 혹은 컴퓨터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요 문화적 아이콘이며 의사소통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에 대한 신학적 혹은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을 세우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웹2.0 현상에서 부각된 교회에 관한 시민사회

당파성의 과잉이 학문적 가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6) Mark Tremayne 저, 이동훈 역, 「블로그 연구를 통해 본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교훈: 능동적 수용자의 배양」, Mark Tremayne 편, 『블로그와 시민권,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378.

7) 이 부분은 송경재, '웹2.0시대 정부의 인터넷 대응은 "퇴행중"'(프레시안 인터넷판 2009. 3. 3일자)이라는 기고문을 참고하였음. 한 쪽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인터넷 관계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쉼지의 내용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한 쪽의 이해'는 민감한 용어일 수 있다. 그 '한 쪽'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잡힌 이해와 합리적인 토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표현인 듯싶다.

의 ‘불통’의 평가와 ‘소통’의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 교회는 과연 시민사회와 불통하는 집단인가? 어찌 보면, 교회를 향하여 ‘불통’을 말하는 것은 시민들의 과당적이고 편향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시민의 편을 들어주지 않거나 시민적 집단지성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것은 시민사회의 변화에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일 수 있다. 웹2.0의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는 웹1.0에 머물고 있거나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이는 교회가 성찰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과제들을 지니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지금이야말로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가 모색되고 대안을 찾아 실천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다. 웹2.0의 변화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기독교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⁸⁾ 이는 홈페이지를 비롯한 교회의 웹 활용에 관한 문제로 축소되거나 문화선교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큰 틀에서의 ‘소통’이라는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통의 문제는 콘텐츠의 문제나 웹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있는가 혹은 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시민적 공공성에 어느 정도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교회의 윤리적 성숙도가 과연 시민사회를 주도할 수준에 해당하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8) 필자가 보기에, 교회의 케리그마적 소통의 현대적 의의에 관한 논의는 이 글에서 감당하기 벅거운 주제이다. 별도의 기회를 통해 조직신학, 성서신학, 교회사 등 신학분야 간 협력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한국교회가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윤리적 과제와 조건들을 다음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 밖으로의 소통을 위한 공공성에 대한 관심, 교회 안에서의 소통을 위한 복음적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적 소통의 추구 혹은 문화선교적 소통의 노력이 그것이다.

III. 소통을 위한 교회의 윤리적 과제

1. 교회의 공공성 제고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첫째 과제는 ‘공공성’(publicness)⁹⁾의 제고이다. 교회가 공공의 영역과 공공의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혹은 교회가 지닌 공적 특성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함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공성은 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민’은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하는 ‘시민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¹⁰⁾ 더욱 그렇다.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에서 교회가 ‘공공’의 문제들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줄 때 교회의 소통은 더욱 의미 있는 것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사실,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였다. 가령, 칸트가 이성의 공적사용(the public use of reason)을 시민사

9) 공공성의 영어표현을 ‘publicness’로 사용한 것은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책세상, 2009)에서 참고하였다.

10) 이승훈, 『시민사회 사상의 역사와 딜레마』, 굿미션 네트워크 편,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 NGO를 통한 선교와 교회』(예영, 2008), 45.

회의 공론주체에게 돌렸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란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공적사용에 해당한다.¹¹⁾ 최근에 각광을 받는 사회철학자 하버마스나 사회윤리학자 롤즈(J. Rawls)의 경우는 이러한 칸트적 유산의 대표적인 계승자들이다. 현대시민사회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이들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그들의 ‘담론’과 ‘공론장’의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사회윤리학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현대 시민사회가 공공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은 시민적 가치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시민의 눈에 교회는 도무지 공공성에 무관심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회는 시민적 공공성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집단으로 낙인찍히기 쉽다. 교회가 이미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담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평가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공공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되었다. 다만 한국교회가 민감하지 못했을 뿐이다. 혹은 공공성에 대한 표현과 참여의 방식이 다르거나 시민적 소통에 서툴렀다고 해야 할 듯싶다. 신학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후버(W. Huber)가 중심이 되는 유럽의 공공신학과 스택하우스(M. L. Stack house)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계열의 공공신학은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신학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미 그들의 문제의식 속에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와 공공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

11) 김상준, 「공공성이란 무엇인가—한국 시민사회와 공공성의 의미」, 이동수 편, 『미래사회와의 소통』(이매진, 2008), 213.

특히, 시민사회가 교회에게 불통을 말하고 소통을 요구하는 핵심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관심은 본격화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듯싶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을 사적(private) 고백의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신앙인들이 공적인(public)일들에 관심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스택하우스가 말하는 공공신학의 필요성 두 가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원이란 신비하고 밀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내어놓고 이성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주제라는 점, 둘째, 신학은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¹²⁾ 이는 기독교신앙이 그 자체로 이미 공공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교회가 공공을 위한 책임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을 살려 본다면, 공공신학은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학’이다. 일찍이 니버(R. Niebuhr)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구분했다면, 스택하우스는 이 전통을 계승하여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사회윤리’로 발전시킨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¹³⁾ 우리는 특히 스택하우스가 제안한 공공신학의 주제에 관한 언급에서 사회윤리학으로서의 공공신학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적인 삶(public life)을 신학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정치-경제적 구조(the political-economic structures)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12)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intro, xi

13) 拙稿,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개념과 사회윤리적 특성」,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 논총』 10권, 2008, 170.

14)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Univ. Press of America, 1991) intro, ix

스택하우스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가 시민사회의 다층적 다원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독교신앙의 깊이를 더해 줄 것이다.¹⁵⁾ 신앙인들은 공공영역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테크놀로지에 이르는 사회의 분야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에토스’(ethos), 즉 시대정신 또는 윤리적 사고방식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관점이다. 무엇보다도, 공공신학이 시민사회의 문제들에 폭넓게 소통하기 원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례로, 스택하우스 자신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인권운동에도 참여했고 글로벌시대의 공정무역(fair trade)을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적 이슈들에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 가정과 성(性), 그리고 과학기술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다. 기업윤리에서 배버의 명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기업의 바른 에토스(ethos)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도 공공신학의 관심사이다. 그런가하면, 스택하우스가 주도한 『하나님과 지구화』(God and Globalization) 시리즈 역시 공공신학적 관심들을 잘 보여준다.

특별히, 공공신학을 ‘소통’과 연관 짓는다면,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절실해진다. 우리가 믿기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소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지구촌의 구원가능성에 생명력을 주신다.¹⁶⁾ 우리가 이러한 ‘소통’의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소통’으로서의 공공성은 그리 멀리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 점에서, 공공신학은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소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소통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신학에서 낯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15) Max, L. Stackhouse, ‘An Introduction’ in Max, L. Stackhouse ed. *The Local Church in a Global Era: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Wm, B. Eerdmans Pub. Co., 2000) 3.

16) Max, L. Stackhouse, ‘Joining the Discussion’ in Max, L.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127.

놓쳐서는 안 된다. 스택하우스가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받아 교회가 시민 사회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역설한 부분에서, 우리는 공공신학이 기독교의 본래적인 관심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공신학은 그 기초를 성경에서 찾는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스택하우스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왕, 제사장, 예언자로서의 삼중직을 근거로 하는 기독교인의 소명을 강조한다.¹⁷⁾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모델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성경과 교회전통 속에서 여러 역할로 묘사되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제사장과 왕의 직(職)이 강조되었고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온전히 강조되기 시작했다. 스택하우스가 보기에,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설교하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예언자’에 비중을 두었다. 문제는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오늘의 교회가 사회를 향한 예언자적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뜻에서, 공공신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온전한 대리인 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신학의 핵심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은 교회 뿐 아니라 공공의 영역 즉 시민사회까지도 통치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따지고 보면, 교회가 공공성 문제를 기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17) Max, L. Stackhouse, 「소명과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9~27.

18) 拙稿, 「시민사회를 향한 교회의 아름다운 몸짓, 공공성」, 『목회와 신학』 2월호, 2009, 180.

모른다. 교회건물 자체가 이미 공공의 영역 한 복판에 우뚝 서있고, 시민사회라는 공공의 영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절실해진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공공의 영역을 향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점에서, 필자는 건강한 교회와 신앙을 발판으로 시민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공공신학의 통찰이자 메시지라 해석하고 싶다. 혹은 기독교신앙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향해 당당해지자는 뜻이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교회는 공공성의 인식을 통해 윤리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시민사회를 향하여 교회의 초월적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공공성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민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비정부기구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힘이 증대된 오늘의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¹⁹⁾ 물론, 시민사회가 합리화를 명분으로 종교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거나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는 해도, 시민사회와 불편한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 스택하우스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는 현대문화를 악으로 간주하여 경건을 앞세운 도덕적 순수성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현대사회의 도전들로부터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적·사회적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 기독교전통이 시민사회와 충돌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거나 거부당하도록 않도록 기독교윤리의 관점을 갱신시켜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마땅하다.²⁰⁾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문화와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시

19) Max, L. Stackhouse,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in Max, L.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Abingdon Press, 1995), 58.

20) *Ibid.*, 16.

민사회를 위한 윤리적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공적 담론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²¹⁾ 스택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공공의 삶에 대해, 설교와 교육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삶에 가이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²²⁾ 혹은 모든 종류의 유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발성과 책임성에 입각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²³⁾ 필자가 보기에, 한국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첫걸음은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신앙인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와 교회교육을 통한 공공성의 계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교회의 공공성을 말할 때 교회의 교회다움과 건강성에 대한 확신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공공신학은 ‘교회 밖으로’ 윤리적 관심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교회 밖으로’ 나가 기도 전에, ‘교회 안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목회자 납세 논란, 지역사회와의 갈등, 교회재정투명성 등에 관하여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밀려오고 있다. 이처럼 ‘교회 안의 공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교회 밖의 공공성’을 말한들,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회 안의 공공성’에서 출발해야만 교회 밖의 공공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 지리라 본다.

21) Stackhouse, M. L.,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14.

22)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Univ. Press of America, 1991) 30.

23) 박영신, 「종교와 시민사회」, 굿미션 네트워크 편,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 NGO를 통한 선교와 교회』(예영, 2008), 12.

2. 복음적 정체성 회복

웹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둘째 과제는 교회의 교회됨, 즉 복음적 정체성의 회복이다. 어찌 보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야말로 시민적 기대의 핵심일지 모른다. 설령, 시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과 다른 측면이 부각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본연의 목적과 정체성에 충실한 모습을 구현하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중요한 조건이자 과제임에 틀림없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첫째 과제, 즉 ‘교회의 공공성 제고’와 논리적 정합성을 지닌다. 스택하우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공공신학의 관점을 공공성 제고라는 과제로 응용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교회 안에서의 공공성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교회 재정투명성을 비롯한 민주적 가치들의 구현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다운 교회의 구현이라는 핵심가치를 전제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는 과제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제아무리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됨의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NGO 혹은 시민운동을 위한 단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그 이상의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²⁴⁾

따지고 보면,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우어워스(S. Hauerwas)를 응용하자면, 교회는 시민사회가 본받을만한 윤리적 탁월성을 보여주어야 한다.²⁵⁾ ‘대안적 윤리공동체로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본

24) 공공신학이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강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교회에 시민적 공공성을 말하는 과정에 교회됨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5) 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拙著, 『복음대로 사는 윤리』(북코리아, 2009)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되는 일은 가능할 것인가? 그럴 수만 있다면, 교회의 불통을 말하는 시민적 소통의 요구 앞에 교회는 더욱 당당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로 교회되게(to be the church) 하는 데 답이 있다.²⁶⁾

그러나 이것은 시민적 요구에 민감한 주도적 모범시민이 되라는 이야기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가령 자본주의적 소비지상주의 등을 넘어서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현대인은 고삐 풀린 욕망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문화는 끊임 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거대한 욕망의 슈퍼마켓이다.²⁷⁾ 교회는 소비에 찌든 현대인을 위한 대안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핵전쟁을 비롯한 전쟁에 대한 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 교회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시민사회에 비폭력의 평화를 대안 또는 탁월한 삶의 방식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회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회에 윤리를 제안하기보다 그 자체로 사회윤리이어야 한다는 주장, 혹은 교회는 사회전략을 갖지 않으며, 교회 자체가 사회전략이라는 주장,²⁸⁾ 신앙인은 세상에 영합하는 존재라기보다 나그네 된 거류민이라는 주장²⁹⁾ 등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반영이다. 교회로 하여금 윤리적 대안 세력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세상을 혐오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소종파주의자(sectarian)가 되라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26)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100.

27)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이종태 역,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복 있는 사람, 2008), 108.

28)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 있는 사람, 2008), 61.

29) 같은 책, 13.

교회의 본래적 정체성, 즉 복음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주의와 폭력에 물든 시민사회에 탁월한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가 사회문제들에 정책을 제시하고 협력자가 되어 현실정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가 따라올 수 있는 사회윤리의 제안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혹은 교회가 교회되면 시민사회가 교회를 본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교회를 윤리의 중추적인 공동체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윤리를 교회적 윤리(ecclasiacal ethics)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그는 교회를 기독교적인 덕의 터전(locus)이며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강조한다.³⁰⁾ 그에 따르면, 모든 윤리적 응답은 교회에서 시작된다. 이 점에서, 그의 윤리는 교회의존적(church-dependent)이다.³¹⁾ 그리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소명(calling for the church to be the church)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남의 윤리도 아니며, 세상의 문제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게 살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 의를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교회로 하여금 평화의 왕국(the peaceable kingdom)의 증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교회됨이란 무엇인가?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를 교회로 알게 하는 표식이 있다면, 성례(sacraments)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며 올바른 삶(upright lives)의 모습이 있는 곳이

30) Robin Gill, *Churchgoing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1999) 15.

31)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 있는 사람, 2008), 106.

다.³²⁾ 우리는 특히 세 번째 요소, 즉 교회의 윤리적 특성에 대한 강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핵심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 특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 탁월한 윤리적 성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에 따르면,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의 방식을 부여하는 이야기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다.³³⁾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 속 하나님 이야기들과 자신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삶의 방식을 배우고, 살아있는 전통으로 구성한다.³⁴⁾ 말하자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을 실천적으로 공유해온 공동체이다.³⁵⁾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를 통해 ‘예수 네러티브’대로 살아갈 모티브를 얻으며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성품과 덕성이 훈련되고 성숙된다. 예수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사회가 교회를 본받게 될 것이요,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인 셈이다.³⁶⁾ 교회가 사회문제들에 어설픔게 개입하기보다 예수 이야기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특히 교회는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시민사회에 비폭력의 평화를 대안 또는 탁월한 삶의 방식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본모기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물론, 반전반핵 무저항비폭력만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

32)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2006), 107.

33) Hauerwas, S. *Truthfulness and Tragedy* (Univ. of Notre Dame Press, 1977), 73.

34) Hauerwas, 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1), 96.

35) Hauerwas, S. *Christian Existence Today* (Duke Univ. Press, 1988), 102.

36) 문시영, ‘덕성의 훈련장, 교회 공동체 강조—스탠리 하우어워스’, 국민일보, 2007년 12월 22일자.

신 사건을 설명하려는 그의 생각은 복음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교회와 신앙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준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우어워스가 시민사회 속의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교회가 복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 제고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다.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이 제대로 소통될 때 시민사회를 향한 소통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윤리적 탁월성과 성숙에 대한 인식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찌 보면, 교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공성 제고라는 점에서 본다면 하우어워스가 말한 방법, 즉 복음에 충실한 교회, 복음대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 윤리적 성숙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교회의 공공성 제고를 통해 교회 안에 공공성을 확립하여 공공의 영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과 복음적 정체성에 입각한 대안세력이 되는 것은 상충적 요소라기보다 양립가능하다.³⁷⁾ 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며 상호보완적이다. 공공성과 정체성 사이의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상충적 요소들을 논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정체성 사이의 신학적 토론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며 어떤 실천에 민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전략과 방법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교회의 공공성과 복음적 정체성에 관한 인식이야

37)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과 하우어워스의 교회적 윤리는 학문적 라이벌로 인식된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교회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 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요소들이라 평가하고 싶다. 拙稿, 「교회 안에서의 윤리, 교회 밖으로의 윤리」, 『성암사상연구』 4집(남서울대, 2007)을 참고하기 바란다.

말로 시민적 소통의 조건이요 가장 큰 과제들이라 생각한다. 만일 이 두 요소가 충족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으며 그 자체로 시민적 소통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노력에 다름 아니다.

3. 시민적 소통의 추구

셋째, 웹 2.0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교회는 시민적 소통을 추구해야 한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교회의 공공성 제고와 복음적 정체성 확립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윤리적 성숙의 인식을 토대로, 한국교회는 시민적 소통을 위한 전략 혹은 방법론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적 소통이라 함은 교회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관심과 복음적 정체성을 바르게 알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에 대한 교회의 교회다운 응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것은 시민의 요구를 토대로 교회를 개혁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방편들을 모색하지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언제까지나 시민사회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하거나 수세에 몰려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선교적 소통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 전제와 기초는 교회의 공공성 제고와 복음적 정체성의 확립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시민적 소통을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의 제안은 시민적 소통을 위해 대외협력기구(Office of Public Relations)의 설치 혹은 그 기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신학적 견지에서 교회는 시민사회를 향하여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는 이슈들에 대해 교회의 공식적인 대응을 주도하고 시민사회와의 진지한 소통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 대외협력기구의 기능 중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십이다. 이는

교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대변기구를 넘어 공적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교단 혹은 연합체에 종합적인 안목을 구비한 공식기구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테면, 동성에 문제나 연명치료중단의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각개전투 하듯 중구난방으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다양한 신학적 관점에 따른 쟁점들은 충분히 토론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적어도 '기독교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부의 충분한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 합의된 내용들로 발표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싶다.

또한 공공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 안에 익숙한 '은혜'의 언어로 그들과 소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나기 쉽다. 시민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통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미 공공신학에 관한 논의에서 소통을 위한 언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³⁸⁾ 공공의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독선으로 비춰지거나 '그들만의 언어'로 들려지는 부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신학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동성애나 성전환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묻는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시민사회로부터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에도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외협력기구의 기능에는 언론 모니터링도 포함된다. 바른 정

38) 노영상, 「교회와 신학의 공공성에 대한 논구: 공공신학의 이해와 수용에 대하여」,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77~80.

보의 제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는 등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언론 모니터링과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교회의 일체감과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시민사회의 오해는 줄어들 것이며 교회를 가볍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교회의 자기과시나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을 만들지는 것이 아니다. 왜곡된 이야기들이 매체를 통해 확산될 때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소극적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변증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구차한 변명이 아닌 진실에 입각한 변증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교회의 대외협력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미디어에 대한 교회의 인식을 바르게 하고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육에 미디어 관련 교과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신학교육 커리큘럼에 언론 및 방송 관련 정규과목을 설강하여 교회의 소통을 위한 목회적 관심과 전문성을 고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본다.

만일 이러한 대외협력기구가 개별 교회에 설치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분명, 교회는 주차갈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마찰만 양산하는 집단은 아니다. 갈등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교회의 일방적 불통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때로는 지역사회의 오해와 왜곡이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식창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구나 지역사회 섬김의 여러 노력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소통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뜻에서, 진실에 입각한 소통, 바른 정보에 의한 소통을 위해 교회가 노력하는 과정에 대외협력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공공신학이 말하는 '변증'의 노력을 수용하자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교회의 시민적 소통에 문화선교적 관심을 접목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웹2.0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는 다

양한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소통하기를 시도한다. UCC는 물론이고 블로그를 비롯한 개인 홈페이지, 그리고 현장생중계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는 웹 2.0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웹 2.0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거나 마땅한 대응능력, 즉 콘텐츠의 부족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을 때, 교회는 너무 수세적이거나 소극적인 반대운동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교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교회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문화선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후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단차원의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어찌 보면, 필자가 제시한 대외협력 기능의 강화는 교회가 시민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최소한의 노력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과 윤리적 탁월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삼는다. 교회의 허약한 윤리수준으로는 공공의 영역에 나아가기도 전에 스스로 좌초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교회의 대외협력기능 강화 혹은 문화선교적 소통의 노력에 못지않게 교회 안에 복음적 삶에 대한 바른 인식과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노력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혹은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관하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반응이 있는 셈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그것 모두가 과연 복음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기성

찰이 필요하다. 교회의 대외협력을 통한 시민적 소통의 추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중에 설교와 교육을 비롯한 교회의 활동 전반에 복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시민적 소통과 복음적 갱신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IV. log-out

교회의 소통을 말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민적 소통에 관한 성찰은 한국교회가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혹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거나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을 통해 교회와 시민사회의 소통하기 위해 세 가지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중 두 가지는 시민적 소통을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 교회의 공공성 제고와 복음적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적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셋째 과제로 제안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과제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의식으로 공유되었으면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사회가 교회에게 불통을 말하는 시대, 교회가 시민사회를 향하여 소통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모델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통을 위한 과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회의 윤리에 관한 통찰의 탐구를 또 다른 과제로 남기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오늘의 제네바가 칼뱅 시대의 제네바와 동일하지 않지만,³⁹⁾ 적어도 교회와 시민사회의 관계설정을 위

39) T. H. 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76.

한 통찰(insight)을 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기독교사회윤리학 적 연구들이 깊어지기를 남은 과제로 제안하고 싶다.⁴⁰⁾ 근대시민사회의 여명에서 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했다는 점만큼은 오늘의 기독교가 배워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 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의 윤리적 갱신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40) 2009년은 칼뱅 탄생 500주년인 해, 1월의 제네바는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필자의 자료수집에 협력해 준 제네바한인교회 유경호 목사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정을 전하고 싶다.

참고문헌

- 굿미션 네트워크 편,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 : NGO를 통한 선교와 교회』(예영, 2008).
- 김택환, 『웹2.0시대의 미디어경영학』(중앙북스, 2008).
- 이동수 편, 『미래사회와의 소통』(이매진, 2008).
- 문시영, 『복음대로 사는 윤리』(북코리아, 2009).
- _____,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개념과 사회윤리적 특성』, 『한국기독교윤리학 논총』 10권(한국기독교윤리학회, 2008).
- _____, 『덕성의 훈련장, 교회 공동체 강조-스탠리 하우어와스』, 국민일보, 2007년 12월 22일자.
- _____, 『시민사회를 향한 교회의 아름다운 몸짓, 공공성』, 『목회와 신학』, 2009. 2월호.
-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 신진욱, 『시민』(책세상, 2008).
-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책세상, 2009).
-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ed. *The Hauerwas Reader* 4th (Duke Univ. Press, 2005)
- Mark Tremayne 저, 이동훈 역, 『블로그 연구를 통해 본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교훈: 능동적 수용자의 배양』 Mark Tremayne 편, 『블로그와 시민권,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Michael Edwards 저, 서유경 역,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동아시아, 2005)
-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Univ. Press of America, 1991)
- _____. *Cr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A Study in Three Cultures* (William Eerdmans Pub., 1984)
- _____. *Covenant and Commitments: Faith, Family, and Economic Lif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_____. 'What is Public Theology? : An American Christian View' (미간행 강연원고,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2007초청강연)

_____.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Abingdon Press, 1995)

_____. ed. *The Local Church in a Global Era: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Wm. B. Eerdmans Pub. Co., 2000)

Patrick Riordan, ed. *Values in Public Life* (LIT, Verlag, 2007)

Robin Gill, *Churchgoing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1999)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3)

_____. *Christian Existence Today: Essays on Church, World, and Living in Between* (Duke Univ. Press, 1988)

_____.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Univ. of Notre Dame Press, 1981)

_____. *Truthfulness and Tragedy* (Univ. of Notre Dame Press, 1977)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 있는 사람, 2008)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이종태 역,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복 있는 사람, 2008)

William J. Collinge, ed. *Faith in Public Life* (Orbis Books, 2008)

논문투고일 : 2009. 10. 21

심사개시일 : 2009. 11. 10

게재확정일 : 2009. 11. 28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웹2.0의 시민사회에 직면한 교회의 과제를 기독교사회윤리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소통'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바꾸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웹 2.0은 인터넷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을 둘러싼 사회윤리의 문제이다. 소통이 사회윤리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마당에, 과연 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소통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1)공공성 제고: 교회는 '공공'의 문제들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정체성 확립: 교회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가 따라올 수 있는 사회윤리의 제안자가 되어야 한다.

(3)시민적 소통의 추구: 시민적, 문화선교적 소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기초로 삼아, 교회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윤리적 갱신과 성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사회윤리, 웹2.0, 공공성, 교회, 도덕적 리더십
